조지아의 영화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조지아 영화제’ 3~5일 광주독립영화관…5편 무료 상영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동유럽의 숨겨진 보석 조지아. 아름다운 자연, 깊은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고대 도시들을 둘러볼 수 있는 곳으로 관광지로도 인기가 높은 곳이다.

조지아는 지난 20여 년간 세 번의 전쟁과 이에 따른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큰 변혁을 겪으며 영화 산업 역시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두터운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성으로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등 거장 감독과 작품을 배출하며 칸, 베를린 등 국제영화제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세계적 거장을 배출한 조지아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조지아 영화제’가 오는 3~5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리며, 이번 영화제에서는 ‘피로스마니’, ‘모이라’, ‘데데’ 등 다섯 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서양화가 한희원 작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9년 조지아 공화국 트빌리시에 머물며 작업을 한 한 작가는 그때의 인연으로 조지아의 영화를 광주에 소개하면 어떨까 생각했고, 주한 조지아 대사관과 손잡고 기획전을 준비했다.

개막작은 ‘피로스마니’(1969·기오르기 쉥겔라이아)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조지아의 전설적인 화가 니코 피로스마니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로 3일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다. 니코 피로스마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 ‘백만송이 장미’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4일에는 ‘모이라’(2015)와 ‘하우스 오브 아더스’(2017)를 상영한다. ‘모이라’는 르반 투트베리드체의 작품으로 바닷가 도시에 사는 한 가족의 드라마틱한 일상을 담은 영화다. 어머니는 해외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자인 동생은 범죄 집단을 기웃거리는 마무카 가족. 이제 막 출소한 마무카는 은행 대출을 받아 산 작은 어선 ‘모이라’로 가난에서 벗어나길 꿈꾼다. 마무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7회 북경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하우스 오브 아더스’는 잔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새롭게 삶을 개척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전쟁은 끝났지만, 인간 내부의 혼란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5일 오후 1시에는 마리암 해치바니의 ‘데데’(2017)를 상영하며 오후 3시에는 아나 우루샤제의 ‘스캐어리 마더’(2017)를 선보인다.

‘데데’는 뿌리 깊은 보수적 전통을 지닌 한 백인 마을에 대한 영화로 한 여성과 세 명의 남성에 관한 이야기이자 코카서스 산맥에 위치한 보수적 마을 전통에 도전하는 여성에 관해 보여준다. 14회 유라시아 국제영화제, 8회 북경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감독상 등을 수상했다.

‘스캐어리 마더’ 70회 로카르노 영화제를 통해 처음 관객과 만난 작품으로 50세 주부 마나나가 주인공이다. 영화는 주부로서 책임감과 글쓰기라는 자신의 열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나나가 글을 쓰기로 결심한 후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한다.

선착순 45명 무료 관람. 문의 062-222-198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3일

‘피로스마니’

4일

‘모이라’

‘하우스 오브 아더스’

‘모이라’

5일

‘데데’

‘스캐어리 마더’

전남대-조선대 교류전 5일까지 갤러리 혜윰

전남대와 조선대 미술학과 재학생들의 교류전이 오는 5일까지 갤러리 혜윰(광주시 동구 장동로 1-6)에서 열린다.

교류전은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자신만의 예술을 찾아가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기획됐다.

‘많은 생각이 잠들어 있다’를 주제로 지난 29일까지 열린 1부 전시에는 김도영·박세정·이소의·이지후·이효리·최혜연(전남대), 고태현·류현정·송은경·윤수정·하늘푸른(조선대)이 참여했다.

‘멍하니 있으면 답이 보일 수도 있겠지’라는 주제로 30일부터 이어진 2부 전시에는 강세하·오가은·우선미·정다운·하여경(전남대),고예진·김여원·박재훈·유유리·유지은·조성민(조선대) 작가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2년 6개월만에 끝나는 ‘전문가 영입’

코로나19 이전의 일이다. 인구 109만 명의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고양아람누리 공연장(이하 아람누리)을 찾던 날, 낯선 풍경에 적잖이 놀랐던 적이 있다. 평일 낮인 데도 공연장 주변은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다. 특히 공연장의 부대시설인 레스토랑과 커피숍에는 40~50대 주부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클래식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 조금 일찍 도착한 수강생들이었다.

이날 아람누리에서 목격한 ‘한낮의 풍경’은 깊은 인상을 주었다. 광주에서 공연장은 음악회가 열리는 저녁시간에나 찾는 곳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광주문예회관은 낮시간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해 공연이 없는 낮에는 인적이 거의 없다.

아람누리가 ‘커뮤니티 씨어터’(community theater)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문화CEO가 있었다. 고양시는 축제기획자 등 외부 전문가를 대표로 영입해 대대적인 변신에 나섰다. 시민들의 일상에 맞춘 주·야간 프로그램들을 기획한 결과,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늘어났고 이들이 아람누리의 공연을 관람하는 등 관객창출 효과로 이어졌다.

서울 충무아트센터 취재에서도 비슷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예술행정의 대가 이종덕 대표의 후임자를 물색하던 충무아트센터는 문화CEO로 유명한 김승업씨를 영입해 뮤지컬 전문 공연장의 면모를 전국에 과시했다. 미술·공연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서 부터 10년후의 비전을 담은 로드맵을 통해 충무아트센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서강대 화학과 출신인 그는 서울 예술의전당에 입사한 후 기획부장, 세종문화회관 본부장을 거쳐 지난 2005년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취임 일성으로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문화공간’을 내세운 그는 ‘현장’에서 얻은 전문성과 과감한 추진력을 앞세워 개관 3년도 안된 김해문화의전당을 영남권의 문화허브로 키워냈다.

광주시가 광주문화예술회관 개관 28년만에 도입한 문예회관장 개방형 공모제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 지역 최초로 공모를 통해 민간인 전문가로 영입된 성현출(57)관장이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2년 6개월만에 개방형직위를 해제하고 종전대로 공무원 순환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첫 민간 전문가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28년만에 어렵게 바꾼 공모제를 ‘하루아침에’ 뒤집겠다는 얘기다.

물론 공무원 순환보직제는 행정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년도 못 채우고 타 부서로 이동하거나 정년을 앞둔 공무원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스템으론 광주문예회관의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대부분의 광역시가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고 있는 건 그 때문이다. 더욱이 광주문예회관은 내년 말까지 300억원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공연장이 문화도시의 핵심인프라임을 감안하면 전문가 영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광주시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 관광 안내 챗봇 서비스’

광주관광재단은 9월부터 여행하기 편리한 광주 조성을 위해 정보 공유형 ‘광주 관광 안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광 안내 챗봇 서비스는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관광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광주 문화관광캐릭터 오매나 이미지를 활용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며, 광주 관광정보를 ▲재밌는 광주(관광지 안내) ▲맛있는 광주(맛집 안내) ▲포근한 광주(숙박 안내) ▲판타스틱 광주(축제·행사 정보 안내) ▲기타 안내 등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챗봇은 재단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휴대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재단은 이를 통해 질의·응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단순 관광정보 안내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단은 스마트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관광을 접목시킨 게임형 관광 콘텐츠 ▲양림동 AR 스탬프 투어 ▲야간관광 미션투어 ▲힐링여행지 스탬프 투어 등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67153	1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184 139㎡	대	8,060,000	일괄매각.지상소재제시외건물매각제외
		동소 182 264㎡	대	8,060,000	
[자동차,중기]					
2021타경 69197	1	사용본거지: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 104동 1107호 [대림아파트] 등록번호:52서0464 차명:제네시스 연식:2016	자동차	21,000,000 21,000,000	보관:광주남구송암로124-3송원주차장[062-676-7261]
[기타]					
2021타경 3883	1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07 1층560.25㎡ 2층448.12㎡ 3~5층 각432.40㎡ 6층236.44㎡ 부속 사우나,무도유흥음식점 1층703.07㎡ 2층80.50㎡ 별관 스위트룸 1층219.645㎡ 2층196.24㎡ 단층 발전실40㎡ 단층 펌프실5.32㎡ 연회장 1층27.76㎡ 2층523.32㎡ 보일러실 9㎡[공부상등재된보일러실멸실됨]	호텔	1,064,063,315 1,064,063,315	건물만매각.개보수공사중단된상태로모든건물공실.임병창으로부터부동산에대해금109,950,000원의유치권신고있으나성립여부불분명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1타경 67429	1	담양군 무정면 영천리 684-2 344㎡	대	77,759,500	일괄매각.공부상부속[헛간,변소23.8㎡]이나현황은주택[45㎡]
		담양군 무정면 죽산길 16-5 단층44.6㎡ 부속 단층23.8㎡ 제시외 차양등 41.23㎡[제시외건물포함]	주택	77,759,500	
2021타경 67580	1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370-1 3310㎡	임야	2,336,970,400	일괄매각.지상소재이동식컨테이너1개매각제외
		동소 370-1 1층736.95㎡ 2층724.45㎡ 3층432.85㎡ 4층329.80㎡[건축법상사용미승인건물[골조공사중중단상태,감정평가서참조].현황조사보고서상유치권주장자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그성립여부는불분명]	숙박시설	2,336,970,4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9. 15.[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9. 23.[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필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227-9940 062)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752-9940